

미사 안에서 의 침묵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화!

모든 전례의 중심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인 미사에서의 침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대한 열심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하여 잠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사의 첫 부분인 참회예절 때 우리의 양심을 성찰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기 위해서 잠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제가 “기도합시다”라고 신도들을 초대하는 본 기도와 영성체후기도 때도 침묵으로써 사제의 기도예 동참할 준비를 갖추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칩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바칠 때도 침묵을 지킴으로써 기도지향에 동의함을 드러냅니다.

둘째, 사제가 드리는 기도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그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한 침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기도 때 우리는 겉으로 지키는 침묵만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사제의 기도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사제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셋째, 묵상을 위한 침묵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성서봉독 이후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침묵은 자신의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제의 강론 후에도 잠시 침묵시간을 가져 방금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기도하기 위한 침묵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 영성체 후, 우리는 침묵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바치기 위해 묵상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성체를 모시고 난 이후 그날 미사 때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바치는 것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총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성체조배 때도 우리는 침묵 가운데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바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미사 중에 갖는 침묵의 순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화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침묵은 전체 전례를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전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나쁩니다. 전례, 그 중에서도 미사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간이지 묵상회를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간만큼만 침묵시간을 가짐으로써 전례가 아름답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시간을 가지려 할 때,
혹시 우리 마음은 세상 일로 가득 차게 되지 않는습니까?**